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합 천 군 의 회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 추진방향

○ 합천군 관내 전통시장 4개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화모델 연구로 우리 군의 경쟁력 확보 및 정책제안에 활용

2 연구회 개요

1. 설립근거 :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단 체 명 :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3. 참여의원 : 7명
   - 신경자(대표), 성종태, 이태련,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 정봉훈
4. 활동기간 : 2023. 4. ~ 11.
   ※ 용역기간 : 2023. 6. ~ 11.
5. 연구목적 및 내용 : 합천군 관내 재래시장 4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다양한 형태의 시장 도입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6. 보고회 사진

4 연구결과 및 제언사항

1. 연구결과 분석

가. 합천왕후시장

1) 시장 현황

가) 가장많은 업종으로는 식당(27개), 잡화(13개)로 이루어져 있음

나) 공실은 5개소 전체의 5.43%

다) 왕후시장은 일반 식당은 많지만 특색있는 식당, 주전부리, 반찬가게, 의류 분포가 매우적음

2) 시장 진단

가) 시장테마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나) 메인 상가의 업종이 적절치 못함
다) 주변 골목 및 상가, 음식점이 정비 되어있지 못함

3) 업체 제안

가) 「고려도경」, 「목은서고」의 기록을 기반으로 구현한 고려시대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구성
나) 특색있는 음식점, 간식가게, 의류 등 업종 재배치를 통한 메인상가 활성화 필요
다) 메인 상가 이 외 점포들은 정리되지 못한 통로와 좁은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정비 필요

나. 삼가시장

1) 시장 현황

가) 삼가면 전체 인구는 연평균 4.38%씩 감소하고 있으나, 60대 이상 인구는 연평균 3.2%씩 증가하고 있음
나) 가장많은 업종은 잡화(29.9%)이고, 식품가공·참기름집이 다음으로 분포가 많은 업종임(각 16.4%)
다) 다수의 상인들이 벽을 허물고 여러칸을 사용하고 있으며, 빈점포가 37.5%임
라) 삼가시장은 특색있는 식당, 간식가게, 의류 등 특성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업종이 부족함

2) 시장 진단

가) 점포 면적이 협소하고 셔터가 내려져 있어 지저분해 보이는 시장 내부
나) 노후된 중앙통로 건물로 인해 막혀있고 단절되어있는 상권
다)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상가 번영회 사무실 및 수용차량이 적은 주차장 부지
라) 위치 선정이 이상한 메인 게이트의 위치

3) 업체 제안

가) 삼가 시장은 중앙통로 건물로 인해 한쪽 면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철거 필요 → 철거 부지에는 정문과 시장 광장을 조성하여 이벤트 및 노점상점 운영 등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
나) 300년 전통시장의 테마 강화를 위해 점포 재정비 및 업종 재배치

다) 이옥의 「봉성문여」의 시기(市記 : 시장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AR 체험 컨텐츠 개발

라) 복층 건물로 재건축하고, 1층은 점포, 전통시장 박물관으로 구성하고, 2층은 푸드코트로 구성하여 다양한 요리 판매

마) 주차장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진입하기 쾌적한 주차장으로 재구성

바) 벽화 정비 및 유지관리하여 주택촌에 활기 부여하고 삼가시장-주택촌-뚝방거리를 연계하여 쇼핑-여가-쉼의 공간을 조성

사) 「이양루-구름다리-삼가향교-삼가관광농원-소화가 잘되는 길」 코스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추진

아) 뚝방길의 팔각정, 평상을 활용한 쉼터 조성 및 123사비 아트규브와 같이 광장/쉼터를 유동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다. 초계시장

1) 시장 현황

가) 잡화가게가 가장 많으며(37.14%), 기타·식당(각 11.43%) 순서대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나) 전체 점포의 절반 가량이 공실되었고, 창고로 활용됨(31.4%)

다) 현재 초계시장은 통닭집과 같은 음식점이 있으며 초계의 특성을 살린 음식점이나 반찬가게 없음

2) 시장 진단

가) 절반 이상 점포가 폐쇄되었거나 창고로 활용되며, 메인 상가도 상가 이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나) 간판 정비가 되지 않아 시장 내 통일감이 전혀없음

다) 번영회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으며, 번영회 앞 공터는 방치되어 있음

라) 2층 공간은 주거공간 및 창고로 활용되거나 아무 용도 없이 방치되어 있음

3) 업체 제안

가) 메인상가의 업종 재배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

나)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이 체험/놀이/힐링 기능을 할 수 있는 카페, 식당 위주 점포 입주

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업종인 간식가게 상인 모집

라) 초계시장의 1,2층 공간은 청년예술가 활동 공간으로 조성

마) 청년예술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라. 가야시장

1) 시장 현황

가) 가야면의 인구는 연평균 4.65% 감소함에 비해, 60대 이상 인구는 연평균 4.0%씩 증가하고 있음

나) 가야시장의 현재 운영 점포는 13개소이고, 가장 많은 업종은 식당(3개소)이며, 의류·잡화·채소·해산물은 각각 2개소

다) 전체 상가의 37.5%가 공실로써 창고로 이용되고, 대부분 상인들이 여러칸의 벽을 허물어서 활용 중

라) 가야시장은 어르신 맞춤형 식당 위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애용하는 분식, 간식류 상점이 없음

2) 시장 진단

가) 여러 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인들이 많고, 공실은 셔터가 내려가 있어 폐쇄적인 모습을 연출함

나) 상당수의 점포가 창고로 활용되고 있음

다) 골목 깊이 위치하여 진입하기 어려운 폐쇄된 공간

라) 주차장이 멀어 시장 내부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함

3) 업체 제안

가) 가야시장은 작은 점포들이 집적된 컨테이너형 점포들로 분리하여 공간활용 및 평일은 공방,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며, 주말 시장 개장

나)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업종인 분식, 간식거리 및 문구류 등을 모집하여 가족 친화 시장 조성

다) 현재 활용하지 않는 군 소유의 부지 건물을 철거하고 휴식·오락 공간으로 재구성

2. 제언사항

가. 합천은 인구가 인근 시·군에 비해 적고 타 시·군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시장 이용 인구를 우리 관내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합천 가보기 1박2일 행사를 진행하여 해인사, 황매산 같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연계한 전통시장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 먹거리인 한우, 송기떡 등의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엿보임

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가야 함

- 향후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화를 추진중인 합천운석충돌구 초계분지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초계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연계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3. 언론보도

뉴스프리존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옥원 기자

[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의회가 22일 합천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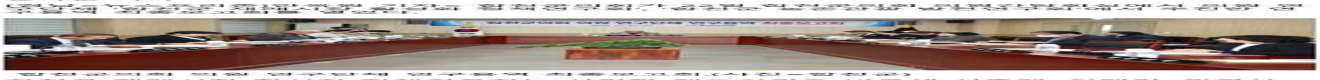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신경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성종태, 이태련,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 정봉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합천군 재래시장 특화 모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는 이종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삼술, 이한신, 김문숙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지난 5월부터 합천군 농기계 테마공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각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현장답사를 통한 의견 수렴, 지역 내 관계자와의 면담, 우수사례 조사?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신경자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합천 시장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확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합천군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농기계 테마공원 설립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연구의 필요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의원 모두가 연구단체에 소속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원 기자 an9332258@hanmail.net